

21세기 科學技術의 메카, 水原大

李 鍾 郁
(水原大 總長)

1. 沿革과 現況

수원대학교는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孝園의 고장인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풍광이 명미한 와우산록의 약 40여 만 평 광활한 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본교는 일찍이 '전인교육·기술교육·호국교육'의 建學理念과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을 향하여 고도성장을 꾸준히 지속해 가고 있어, 앞으로의 국제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선도 할 우수 인력의 확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 나갈 타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1982년에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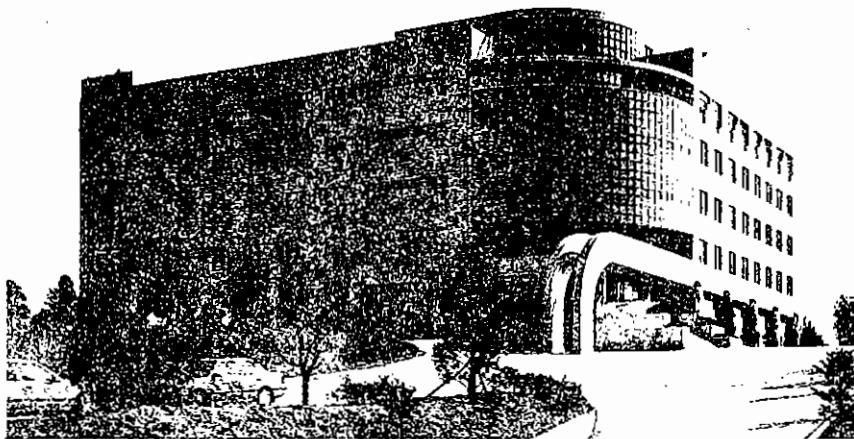
본교는 1982학년도에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사학과·수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 등 3개 학부, 9개 학과에 졸업정원 400명으로 개교한 이래, 매년 수 개 학과의 증과·증원을 통하여 현재 학부는 인문·법정·경상·이과·공과·가정·미술·체육 대학 등 8개 단과대학, 43개 학과에 입학 정원 1,810명의 규모에 이르러 일천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지난 1988년 11월에는 綜合大學校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개교 당시 마련된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에 따라 현재의 인문과학관, 자연과학관, 대

학원, 학생회관, 서관, 사회과학관, 대학본부, 7개국 동시통역 시설이 완비된 문화관, 공학관, 체육관, 학생군사교육관 등 교사의 준공이 이루어졌다.

교육부의 大學特性化 시책에 따라 본교는 유전공학과를 특성화 학과로 지정하여 적극 발전시키고 있으며, 첨단학과인 고분자공학과·환경공학과 등의 연구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첨단공학의 메카를 꿈꾸며 앞으로의 技術民族主義 시대를 이끌 선도적인 인재들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본교가 안산, 반월, 화성 등 인근 산업공단이 필요로 하는 전문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수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서해안 시대를 적극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본교가 있는 화성지역은 중국대륙과 아주 가까운 거리로 과거 對中國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리적인 장점도 있어 명실상부하게 西海岸時代를 주도할 전진기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천연의 조건은 본교로 하여금 장차 시화공업지역의 첨단과학 산업체나 기술집약 산업체들과 산학협동을 적극 활성화하게 하여 첨단 산업 육성 시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로써 본교는 특히 科學技術教育에

◀ 水原大는 우리나라 尖端工學의 메카를 꿈꾸며 관련 학파에 研究 시설을 짐중 지원함으로써 技術民族主義를 선도할 人材養成에 힘쓸 것이다(사진은 工學館 전경).



있어서 교과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도모함은 물론 창의적인 새로운 첨단기술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본교에는 일반대학원 및 교육·행정·산업경영대학원의 3개 특수대학원이 있는데 일반대학원은 12개 학과 144명, 행정대학원은 6개 전공 120명, 교육대학원은 6개 전공 90명, 산업경영대학원은 2개 학과 100명 정원의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심오한 전공학술교육보다는 실용적인 大衆教育 내지 教養教育으로 점차 그 성격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본교 역시 지금까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이같은 시대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본교는 대학교육의 고전적 이념인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교육 기능이 본의 아니게 현저히 약화되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대학원교육은 바로 이와 같은 대학교육 본연의 중요 기능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당위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교의 大學院教育 역시 이같은 당위성에 입각하여 연구와 실험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우수한 학문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설된 분야의 학문연구에서 고도의 專門性과 秀越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3개의 특수대학원은 수도권 지역의 중견인재들을 폭넓게

재교육하면서 연수와 연구기능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附設研究所들은 인근 수원, 화성, 반월천 공업단지 내의 기업체들과 산학협동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많은 연구물을 발표하고 있다. 1986년 4월에 설립된 유전공학연구소는 대학특성화 시책에 따른 첨단과학 연구소로 유전공학 분야, 생명과학 기초분야, 식품영양 연구분야에 걸쳐 현저한 연구실적을 쌓아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큰 뜻을 담당하고 있다. 1988년 3월에 설립된 繼甸文化研究所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방, 한반도 중부일원의 전통문화·전설·언어·민속 등을 조사·연구하여 한민족 중앙문화의 보존 및 현대적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1988년 11월에는 소련 및 동구권 학자들을 초청하여 제 1회 한국학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인 繼甸지역 연구와 함께 한국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1982년 지역사회개발연구소, 이데올로기 비판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1983년 東泉연구소, 전자계산연구소, 1986년 기업경영연구소, 1988년 사회과학연구소, 1991년에는 산업개발연구소와 기초과학연구소를 각각 설립하여 고유의 학문연구는 물론 각 기업체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의욕에 찬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본교 전자계산소는 IBM-ES-9000 대형 컴퓨터를 비롯하여 IBM-9370, IBM S/36, SSM-

32, IBM AT/XT, 금성마이터, 일반 PC 500여 대 등 최신시설을 구비하고 대학의 학사업무 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하여 1990학년도부터 전 학과와 행정부서의 모든 업무가 온라인화되어 학생실습 및 연구와 행정업무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1992년도부터는 도서관 전용 컴퓨터인 IBM-9370을 도입하여 도서관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원대학교 종합전산망 (STIS)'을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업무, 학술 DB 구축, 컴퓨터를 통한 교육, BITNET을 이용한 대학간 연결과 더불어 도서관 시스템을 電算化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내공문, 개시판, 우편업무개발과 CAD/CAM, CAE, 인공지능, 핵물리학, 지형분석, 구조해석 등 각종 폐키지를 도입하여 운용할 방침이다.

본교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은 현재 대학원교수 10명을 포함하여 총 183명이다. 이 가운데 대학원교수는 학계의 원로 석학교수들을 특별 초빙하여 임용하고 있어 대학원 수업의 밀도를 높임과 더불어 연구 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博士學位 소지율은 95.5%로 이중 해외 유명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율은 41.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공대학의 교수요원은 구미의 대학에서 유학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직원은 현재 105명으로 교내 재반 학사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그 전문성과 실무기량을 극대화시켜 가고

있다. 더욱이 업무 분장과 처리에 있어서는 상호보완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포토록 하여 行政의 效率性을 대폭 높여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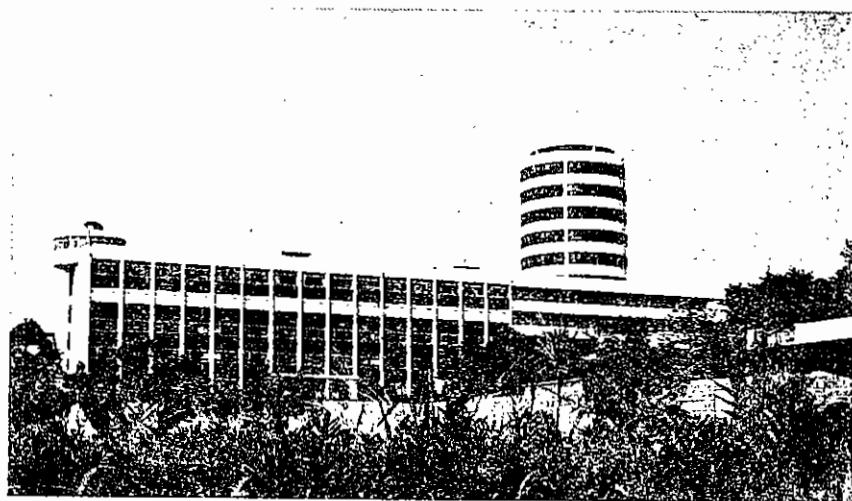
학생 현황은 현재 학부 재학생 6,306명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39명, 교육·산업경영·행정대학원에 310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졸업생은 개교 이후 7회에 걸쳐 5,368명의 학부 졸업생과 127명의 석사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들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유능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2. 教育目標 및 方向

본교의 교육목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에 두고 있다. 이 목표는 고운학원의 창학이념인 호국·기술·전인교육을 구현하는 실체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교는 첫째로 實用主義的 교육의 정규화, 둘째로 進路指導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소정의 정규교과 이외에 설정된 特別敎育課程은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어학실력의 배양, 산업사회에 필수기능인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고도 전문화시대에 대비한 실무와 실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능력을 집중 배양할 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학원, 전산교육원, 고시원, 산학교육원 등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
人材를 양성하고, 국제
화·전문화시대에 대비
한 實力 향상을 위해 전
교생을 대상으로 한 特
別敎育課程이 개설되고
있다(사진은 敎養敎育
館·전경).



서 교수와 지도를 전달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特別敎育院은 각기 그 위치에 맞는 세부과정을 마련하고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밀도높은 강의와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본교의 취업률이 매해 85%를 상회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같은 진로지도를 위한 특별교육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교는 이러한 특별 교육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수시로 보완하면서 한층더 체계화·합리화된 제도와 기구로 운영되도록 특별연구를 하고 있다.

한편, 본교는 지구촌시대에 걸맞는 國際化大學·先進大學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 여러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최신 학술정보와 자료의 교환, 교수와 학생 등의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1985년에 시카고주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10명 안팎의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유학시키고 있다. 또한 1990년에는 미국 서부의 패션명문교인 FIDM과도 자매결연을 하여 공동폐선쇼를 잠실 롯데월드에서 개최한 바 있다. 본교 가정대학의 의류직물학과와 함께 개최한 이 패션쇼는 해당 전공학생들에게 다양한 국제감각을 익히게 하였음은 물론 실습과 이론을 차원높게 조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향후 본교는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지의 유수 대학과도 자매결연을 계획·추진중에 있다. 특히 대학 中·長期發展計劃에 따라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설립되는 경우, 구미선진국과의 첨단 의료기술과 정보교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해결 것이다. 더욱이 본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실정에 비춰 볼 때, 綜合醫療 시설의 개설·운영은 매우 시급한 형편이라고 할 것이다.

3. 發展計劃 및 方向

'92학년도에는 본교의 발전사에 있어 두 가지 회기적인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 하나는 개교 이래 동일캠퍼스를 사용하던 專門大學이 별도의 캠퍼스와 학사를 마련하여 이전하며, 다른 하나는 장서수 100만 여 권, 열람석 5,000여 석 규모의 中央圖書館이 9월부터 개관되는 것이다. 이는 고운학원 설립 15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

루어지는 큰 사업으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수원전문대학이 이전할 캠퍼스는 현 캠퍼스와 가까운 봉담면 보통리에 조성되고 있다. 보통리 저수지를 굽어보는 산자수명한 산록에 총 부지 약 5만 평에 본관을 비롯한 11,000평의 학사가 준공되면 전교를 이전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본교는 독립된 광활한 캠퍼스를 확보함으로써 본교의 大學發展史에 커다란 획을 긋는 계기를 달성하여 개교 당시의 계획목표인 연구·교육·사회봉사의 다기능을 수행하는 multiversity로서의 완벽한 면모를 갖출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교사 전립은 교수회관·미술대학·의과대학 등 3개 교사를 비롯한 부속병원, 야외음악당, 설립자기념관 등의 부수시설이 남게 될 것이다. 개교 이후 본교의 유례없는 고속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계획은 새로운 세기의 도래 이전에 넉넉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앙도서관의 준공 역시 약 3년의 공사 끝에 이루어지는데, 본교는 그동안 국내 타대학 도서관은 물론 구미 대학도서관을 두루 살펴보고 그 장점만을 취합하여 완벽한 도서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왔다. 따라서 본교의 도서관은 규모 면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 기능을 종합한 多機能 복합건물로 그 효용성을 최대화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장서에 있어서는 첨단공학을 중심으로 한 본교의 特性화 시책에 걸맞게 구미의 각종 최신간 서적과 잡지 및 자료들을 두루 소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각종 도서의 확보와 구입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고문헌으로부터 최신간을 총망라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대학은 머지 않아 도래할 지구촌의 다원화된 지역주의와 기술민족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학은 냉엄한 國際競爭 속에서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역량과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본교는 이와 같은 시대적 당위와 사명을 깊이 통찰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심오·정치한 이론과 선진 과학기술을 창출하는 대학, 민족의 양식과 존엄을 지켜나가는 대학을 지향해 나갈 것이다. ■